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7.15(금) ~ 2022.7.21(목)

제공일시 2022 07 2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1. 바이든, 기후 비상사태 선포 대신 풍력 발전 조치

-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비상사태 공식 선포는 이르지 못했지만, 행정적 조치를 완화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음
- 바이든 대통령은 대신 폭염 문제를 해결할 냉각센터를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석유가 풍부한 멕시코만의 새로운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 등을 제시함
- 하지만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국방생산법을 사용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릴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민주당의원들과 환경운동가들은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를 바라고 있음
- 바이든은 기자들에게 “곧 그 서언을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백악관은 냉각센터를 위해 23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함

(Reuters, 2022.07.21.) Jeff Mason, Timothy Gardner 기자
<https://www.reuters.com/world/us/biden-announce-executive-actions-climate-2022-07-20/>

2. 유럽의회, 재생에너지로서 산림바이오매스 발전 지속 추진

- 유럽연합(EU) 의회 에너지위원회가 재생에너지 지침(RED III) 개정안을 채택하고, 산림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지속 발전 추진한다고 발표하여 지난 5월 채택된 EU 환경위원회의 채택의견을 뒤집음
- 이번에 채택된 내용상 극히 일부 목재 사용형태(saw logs, veneer logs)만 제재를 받으며, 이마저도 개별 국가 특수성에 따를 전망이다
- 또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장치를 설치하거나, 화석연료로부터 연료전환 하거나, EU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속적인 인센티브나 보조금을 받도록 했음

(데일리안, 2022.07.15.) 김준평 기자
<https://www.dailian.co.kr/news/view/1132947?c=naver>

3. 보잉, 항공 탈탄소 경로 평가도구 공개

- 보잉이 2050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새로운 데이터 모델링 도구인 캐스케이드(Cascade)를 발표했다
- 캐스케이드는 주요 대학과 공동 개발한 이 도구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연료의 능력을 수치화하고, 항공 탄소 제거의 여러 경로를 평가함
- 이에 더해 수소, 전기, 지속가능항공연료(SAF)와 같은 대체에너지 연료를 생산, 분배, 사용하는데 필요한 배출을 평가하고, 다양한 에너지원의 전체 라이프사이클 영향을 평가함
- 보잉은 항공사 운영자, 산업파트너, 정책입안자들과 함께 캐스케이드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음

(ESGToday, 2022.07.18.) Mark Segal 기자
<http://www.esgtoday.com/boeing-unveils-data-tool-to-guide-airline-decarbonization-pathways/>

4. 에너지 위기?... 식품 인플레이션이 더 위험하다 - 블랙록 회장

-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이 에너지보다 식품 가격을 더 우려해야 한다고 경고함
-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와 광물의 급격한 가격 변동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더 지속적이고 더 위험한 식품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임
- 핑크 회장은 “휘발유보다 더 큰 이슈가 식품”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 막대한 농경지가 파괴됐다. 전세계 작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설명함

(뉴스1, 2022.07.18.) 신기림 기자
<https://www.news1.kr/articles/1416262>

1. 국내 수출기업 절반 이상 “ESG 미흡으로 계약, 수주 파기 위기감 느껴”

- 대한상의가 ‘수출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대응 현황과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2.2%가 ESG 공급망 실사 지침에 따라 ESG(환경·책임·투명)경영 미흡으로 계약·수주 파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응답함
- 실사 대비 수준을 묻는 질문에 ‘낮다’는 응답이 77.2%였으며, 대응 수준과 관련해서는 58.1%가 ‘대응 체계 없음’, 27.5%가 ‘사전준비 단계’라고 답했음
-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내부 전문인력 부족’(48.1%)이었고, ‘진단·컨설팅·교육비용 부담(22.3%)’, ‘정보 부족’(12.3%)도 거론됐음
-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①업종별 ESG 가이드라인 제공(35.%) ② ESG 실사 비용 지원(23.9%) ③협력사 ESG 교육·컨설팅 비용 지원 ④ESG 인프라·시스템 구축 금융지원(16.3%) 등을 희망했음

(한국일보, 2022.07.17.) 박관규 기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NewsReadID=202207171540003804>

2. 무역업계 “공급망·탄소중립 문제, 정부 지원 시급”

- 한국무역협회는 중소·중견 무역업체 CEO 342명의 의견을 담은 정책제언 보고서 ‘새 정부에 바라는 수출현장의 목소리’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함
- 이 보고서는 수출용 원재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와 수입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해, 무역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줄 것 등을 건의했음
- 또, RE100에 참여하는 글로벌 대기업이 자사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관련 요구를 강화하는 것도 어려움이라고 밝힘
- 이에, 탄소배출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줄 것을 요청함

(뉴스1, 2022.07.18.) 박정규 기자
https://news1.com/view/?id=NEWS20220718_0031945263&cid=13001&pid=13000

(연합뉴스, 2022.07.18.) 박상돈 기자
<https://www.ynra.co.kr/view/AKR20220718040500003?input=1195m>

3. 현실화한 R의 공포... SK하이닉스·LG엔솔·美마이크론 ‘투자 STOP’

- 전 세계에 불어닥친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 커진 경영 불확실성과 반도체 업황이 부정적인 상황에 투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음
-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 충북 청주 신규 반도체 공장(M17) 증설 안전을 격론 끝에 보류했음
-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던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 애리조나주 퀸크리크에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었지만, 원부자재 가격과 환율 급등 여파로 투자비가 당초 계획을 훌쩍 뛰어넘자, 투자계획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음
-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1위 대만 TSMC와 메모리 반도체 3위 미국 마이크론도 하반기 설비투자 규모 축소에 나섰다

(서울신문, 2022.07.19.) 박성국 기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19500165>

1. 2차전지 '마지막 퍼즐'...폐배터리株 뜬다

- 기업공개(IPO) 역사상 기관투자가 수요예측에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성일하이텍과 코스모화학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에너지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14GWh 규모였던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30년 415Gwh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사용 후 전기차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원자재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배터리 법안'을 연내 발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임
- 현대자동차도 폐배터리산업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테슬라는 자체 폐배터리 재활용 생태계 구축을 마쳤으며, LG에너지솔루션·LG화학은 지난해 리사이클 지분 2.6%를 확보했음

(한국경제, 2022.07.21.) 심성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727462?date=20220722>

2. '재생에너지' 소수력 발전 활용해 수소 생산... 국내 첫 사례

- 재생에너지인 소수력(小水力) 발전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산되는 그린 수소가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임
-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21일, 정수장의 소수력 발전을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그린 수소 실증시설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힘
- 이는 재생에너지 소수력 발전을 활용한 국내 첫 사례로, 기후대응기금 예산 30억8000만원이 투입됐음

(뉴스시스, 2022.07.21.) 오제일 기자
https://newsis.com/view/?id=NS120220721_0001951435&cid=102014&pid=10200

(미디어펜, 2022.07.21.) 구태경 기자
<http://www.mediapen.com/news/view/740135>

3. "안 하면 죽는다"... RE100 속도내는 기업들

- 2020년 SK그룹을 시작으로 미래에셋증권, KB금융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이 RE100에 가입한 것에 이어 올해에도 주요 기업들이 'RE100'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올해는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KT, LG이노텍 등이 합류했고 삼성전자도 RE100 가입을 검토 중인 단계임
- 업계 관계자는 "RE100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된 만큼,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도 동참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음

(e대한경제, 2022.07.20.) 김민주기자
<https://www.dnews.co.kr/html/view.jsp?dno=202207201510481070540>

4. 전기차 시대 떠오른 SiC 반도체... 2026년 40억달러 시장 확대

- 실리콘카바이드(SiC·탄화규소) 전력반도체가 전기차 등 미래차 시대를 맞아 빠르게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됨
- 실리콘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데, ST(ST)마이크로, 온세미(ON Semi), 울스스피드(Wolfspeed), 인피니온(Infineon) 등이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 및 부품업체와 함께 시장을 넓히고 있는 상황임
-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자체칩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전해짐

(이데일리, 2022.07.15.) 김상윤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realTime.do?cid=0243462234848&mc=CobHw/2576&ut=03&rt>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7.15(금) ~ 2022.7.21(목)

제공일시 2022 07 2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변동하는 글로벌 시장 흐름 속 ESG 펀드 이익 증가했지만 리스크 줄이고 가치 높여야...

- 시장 전반의 하락세 속에서도 유럽의 ESG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선방하고 있는 추세임. ESG 관련 ETF 수급은 2분기에 약 42억유로(약 5조6000억원)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유럽 ETF 시장 전체와 비교하면 수급 감소 폭은 적은 편임
- 올해 2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서방 석유·가스·방산업체로 수급이 몰리면서 ESG 관련 펀드 수익률도 약세였음. 반면 강력한 규제가 순조롭게 통과된 유럽은 ESG 관련 ETF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이끌었음. ESG 관련 ETF는 2분기 유럽 전체 ETF 수급의 약 42%를 차지했는데, 지난 1분기에는 약 30%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유추됨
- 유럽에서는 미피드 II(Mifid II) 규제 개정안이 8월 2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각 기업의 투자자들이 고객에게 재정적 목표 외에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기업 운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이번 개정안에 투자 서비스 및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면서 미피드 II 개정안이 ESG 분야의 투자 수급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미피드 II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기능을 개선해 효율성·유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으로 2018년 1월 3일부터 시행됐음
- 지난 22일(현지시각) 미국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재생에너지 업체 넥스트에라 에너지(NextEra Energy, Inc.)가 2분기 수익률을 발표했는데 월가의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고 로이터가 보도함.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미국 플로리다 주에 본사를 둔 청정 에너지 기업으로, 계열사로 플로리다 전력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플로리다 전역에 1200만 명 이상에게 전기를 공급함
- 지난해 2분기에 1주당 0.13달러(170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나 올해 2분기에는 1주당 0.70달러(917원)의 순이익을 올려서 다섯 배 이상 늘어남. 주식을 제외하고 주당 81센트(1061원)를 벌어들여 10분기 연속 월스트리트의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분석가들은 주당 73센트(956원)의 이익을 예상하고 있음. 매출은 시장의 예상치인 51억7000만달러(약 6조7727억원)에 비해 32% 증가한 51억8000만달러(약 6조7858억원)를 기록함
- 넥스트에라 에너지의 사장 겸 CEO인 존 켈참(John Ketchum)은 보도자료에서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강력한 2분기 실적을 달성했으며 올해의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밝힘
- 기록적인 기온과 높은 천연 가스 및 석탄 가격으로 인해 공공요금도 급증하면서 재생 에너지 및 배터리 저장 시스템과 같은 대체 에너지원의 수요 또한 증가한 것이 넥스트에라 수익률의 요인으로 간주됨
- 재생에너지 기업이 투자사에 인수되는 흐름도 보이고 있음. 지난 20일(현지시각)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폐기물 재생에너지 생산을 리드하는 벵가드 리뉴어블(Vanguard Renewables)이 블랙록의 대체자산 사업부에 인수됨. 블랙록은 벵가드 리뉴어블의 경영진과 협력해 2026년까지 전국에서 재생 가능한 천연가스를 생산하기 위해 100개 이상의 혐기성 소화조(미생물에 의한 생분해성 유기물이 분해되는 시설)를 위탁 생산할 계획임

(임팩트는, 2022.07.21) 유미지 기자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583>

(임팩트는, 2022.07.20) 양윤혁 기자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568>

(임팩트는, 2022.07.25) 홍명표 기자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598>

- 메사추세츠 주 웰즐리(Wellesley)에 기반을 둔 벵가드 리뉴어블은 2014년에 설립됐으며, 음식물 쓰레기, 가축 분뇨 등 고농도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혐기성 소화를 통해 이를 재생가스와 액체 저탄소 비료로 변환함
-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계약에서 벵가드 리뉴어블은 7억달러(약 9163억원)로 평가됐으며, 블랙록은 향후 확대 자금조달을 위해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까지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세계 최대 투자사 블랙록이 ESG 시장판도를 가치주쪽으로 옮겨가고 있다(BlackRock tilts the Table on ESG Toward Value Stocks)고 보도됨. ESG 주식 펀드의 매니저들은 대부분 최근 몇 년 동안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기술주에서 볼 수 있는 성장주 위주로 채워짐. 그러나 올해 30%에 가까운 손실을 초래함
- 블랙록은 지난 5월 재무 자문 어드바이저들에게 노트를 보내 "기술주와 소형주 포지션을 줄이고 상품과 에너지 주식에서 이익을 얻도록 하라"고 권고함. 또 블랙록은 "미국 인프라와 배당주의 지분을 매입하고, 인플레이션 보호 국채 보유를 늘리며, 신흥시장 주식의 보유 주식 비중을 줄인 포지션을 유지하라"고 언급함
- 모닝스타의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블랙록의 최대 성장주 중심의 ESG 라벨 교환형 펀드인 '아이셰어스 ESG 어웨어 MSCI(iShares ESG Aware MSCI USA)'와 '아이셰어스 ESG 어웨어 MSCIEM)' 두 펀드의 자금이 유출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짐
- 블랙록은 투자자 노트에 "다양한 경제 시나리오에 대한 역사적 상대적 복원력 때문에 미국 주식을 계속 선호한다"고 썼으며, "위험 노출을 줄이고 가치주 또는 성장주 거래에서 중립에 근접하기 위해 보유 종목 개수를 다소 줄일 것"을 권고함